DBpia

https://doi.org/10.17947/FS.2020.9.85.227

인천상륙작전을 다룬 남한, 북한, 한미 합작영화의 비교 연구*: 전쟁 양상 재현과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강성률
광운대학교

목차

1. 들어가며
2. 전쟁 양상 재현
   1) 전쟁의 한 축인 남한
   2) 북한과 미제의 전쟁
   3) 기독교 사상 안의 반공
3. 영화 속의 가족주의
   1) 조국이라는 메타포
   2) 김일성 중심의 가족주의 국가관
   3) 한미일의 유사 가족 형성
4. 나오며

주
* 이 논문은 2020년도 광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www.dbpia.co.kr

국문요약

본고는 한국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상륙작전을 그린 영화를 비교·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남한 영화, 북한 영화, 한미 합작영화의 재현 등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영화가 그 나라의 시대적 분위기와 집단적 무의식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연구했다.

남한 영화에서는 전쟁의 주체가 남한군이고, 미국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고 재현한다. 그래서 소재를 선택할 때에도 첩보전이나 팔미도 등대 작전, 양동작전 등을 주로 그린다. 이에 비해 북한 영화에 재현된 인천상륙작전은 지휘부의 수월한 후퇴를 위해 벌인 영웅적 전투에 대해 이야기한다. 북한 영화는 한국전쟁을 북한과 미국의 전쟁으로 그리고, 남한군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다. 한미 합작영화인 <인천>에서는 잔혹한 공산 세력에 맞서 싸우는 미국과 남한, 일본의 요원들이 등장하고, 이들은 기독교적 사상을 지닌 채 전쟁을 벌인다.

특이하게도 세 부류의 영화는 가족주의를 통해 전쟁의 아픔과 조국애, 멜로적 정서 등을 표현한다. 남한 영화에서 가족주의는 가족과의 이별의 멜로적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어머니나 아버지라는 혈육을 위해 자식이 기꺼이 전투에 참가하는 것으로 그려져 결국 아버지나 어머니가 조국으로 유비되는 모습을 보인다. 북한 영화에서는 김일성이라는 지도자가 국가로 바로 치환된다. 그래서 김일성은 수령이면서 부모이고 국가가 되고, 인민은 그의 충실한 자식이 된다. 한미 합작영화인 <인천>에서는 재난 영화의 컨벤션으로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게 만들면서, 무엇보다 남한과 일본과 미국이 유사 가족을 형성해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재현한다.

주제어 :

인천상륙작전, 영화적 재현, 전쟁의 양상 재현, 가족주의, 비교 연구

www.dbpia.co.kr

1. 들어가며

생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근대적 산물인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대중 매체(mass media)라는 점이다. 이 말은 대중들이 함께 보는 매체란 뜻으로, 곧 대중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영화화해야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영화 제작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소재를 영화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를 두고 시대적 공감대의 바로미터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영화의 재현이 현실의 사실적 반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를 두고 시대적 공감대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재현과 표현 사이의 거리가 분명 존재한다는 지적도 타당하지만, 그럼에도 특정 영화가 특정 시대의 사회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은 거의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영화는, 구조주의적으로 단언하면, 그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대중영화라는 단어에는 대중들이 공감하는 집단무의식이 영화 속에 들어있다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았을 때 최근의 영화 흐름에서 주목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의 제작과 흥행이다. 천만 명 이상이 관람한 영화를 보면,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가 유난히 많다. 첫 천만 영화인 <실미도>(강우석, 2003)에서부터 <태극기 휘날리며>(강제규, 2004), <왕의 남자>(이준익, 2005), <광해, 왕이 된 남자>(추창민, 2012), <변호인>(양우석, 2013), <명량>(김한민, 2014), <국제시장>(윤제균, 2014), <암살>(최동훈, 2015), <택시 운전사>(장훈, 2017)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개봉 시기를 이명박과 박근혜가 집권하던 시기로 좁히면, 그야말로

www.dbpia.co.kr

역사를 다룬 영화들의 좌우대립이 격화된 시기였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역사영화는 치열한 현실의 '싸움판'이었다. <국제시장>, <연평해전>(김학순, 2015), <인천상륙작전>(이재한, 2016) 등이 우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영화라면, <변호인>, <암살>, <귀향>(조정래, 2017), <택시 운전사> 등은 좌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영화가 되어 양 진영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그래서 당시 영화판이야말로 '역사 전쟁'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

역사를 두고 영화계에서 이처럼 치열한 싸움이 발생한 것은 역사 영화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배경을 소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제 국면에 대한 해석과 사관을 담아낸 일종의 정치 영화"[1]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각 진영의 이데올로기에 맞는 소재를 골라 자신들의 입장에 맞는 스토리로 구성해서 최대한 관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각적 효과의 영화를 만들었던 것이다. 오히려 현재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시간대를 다루기 때문에 편안하게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다.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과거의 이야기라는 안전한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는 완전무결한 팩트는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하면 역사 역시 역사가의 입장에 따라 기록된 이야기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그야말로 "역사 자체가 기억투쟁의 대상이며 역사소설과 영화는 대중적 기억투쟁의 치열한 전장"[2]이 되고 말았는데, 핵심에 영화가 존재한다.

역사를 다룬 영화를 통해 그 영화를 만들고 관람한 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사회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지난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비극이었던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을 남한과 북한, 그리고 참전국이었던 미국이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무엇을 재현하고 있는지, 왜 재현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무척이나 의미 있는 일이다. 전쟁의 당사자였던 남한, 전쟁의 발발자였던 북한, 이데올로기 전쟁에 뛰어든 '자유주의 진영의 보루' 미국의 입장을 영화를 통해 서

주

1) 천정환, 「'역사전쟁'과 역사영화 전쟁 : 근·현대사 역사영화의 재현 체계와 수용 양상」, 『역사비평』 117호, 2016, 419쪽.

2) 위의 글, 419쪽.

www.dbpia.co.kr

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각 영화가 그 나라의 시대적 분위기와 집단무의식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본고에서는 연구하려고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전쟁 가운데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던 인천상륙작전을 그린 영화를 비교하려 한다.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이데올로기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 나라가 어떻게 인천상륙작전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연구이다. 게다가 인천상륙작전을 다룬 영화가 꾸준히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는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용되기 때문에, 각 영화가 어떻게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 지점이다.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은 영화는 <인천상륙작전>(조긍하, 1965), <결사대작전>(고영남, 1969), <아벤고 공수군단>(임권택, 1982), <인천상륙작전> 등의 남한 영화[3], <월미도>(조경순, 1982),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김유삼, 1984) 등의 북한 영화, <인천 Incheon>(테렌스 영(Terence Young), 1982)이라는 한미 합작영화이다. 텍스트로 정한 영화 외에도 인천상륙작전을 다룬 영화가 있지만, 비슷한 성격의 영화거나 인천상륙작전보다 다른 것에 더 큰 의미를 둔 영화는 제외했다.[4]

본고에서는 텍스트로 삼은 영화가 어떻게 전쟁 양상을 재현하고 있는지, 각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가족주의의 양상에 대해서도 분석

주

3) 본고에서는 한국영화를 의도적으로 남한 영화로 칭했다. 남한은 대한민국,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식적인 호칭이라 각각 한국영화, 조선영화로 칭하는 것이 정상적일 수 있지만, 논문 목적이 인천상륙작전을 다룬 영화를 비교하는 것이라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남한 영화, 북한 영화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4) 미국 영화 가운데 인천상륙작전을 다루고 있는 <맥아더 MacArthur>(조셉 사젠트(Joseph Sargent), 1977)가 있지만, 이 영화는 인천상륙작전에 집중하지 않고 "1942년 3월경부터 그가 모교인 웨스트포인트에서 마지막 연설을 시작하는 1962년 3월까지의 일들을" 다루고 있어 텍스트에서 제외했다. 한미 합작영화지만 감독에서부터 배우, 기술, 언어 등에 이르기까지 미국 영화인들이 대부분 책임을 졌고 한국에서는 조연과 엑스트라 정도밖에 출연하지 않은 <인천>으로도 미국의 시각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생각해 제외했지만, <인천>이 온전한 미국 영화가 아니라 통일교에서 주도한 영화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곧바로 반영한다고 하기 어려운 문제는 있다. 남한 영화 가운데 양동작전을 그린 <장사리>(곽경택, 김태훈, 2019)도 텍스트에서 제외했는데, 이미 양동작전을 그린 <아벤고 공수군단>이 있기도 하고, <장사리>는 양동작전의 의미보다는 학도병들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김남혁, 「데탕트 이후 영화의 한국전쟁 재현 양상에 대한 연구 - 더글라스 맥아더 혹은 인천상륙작전 관련 남한, 북한, 미국 영화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74호, 2019, 20쪽.

www.dbpia.co.kr

할 것인데, '전쟁 양상 재현', '가족주의'라는 두 가지 큰 논제로 분석하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보여야 할 전쟁 양상 재현이 영화의 제작 국가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이고, 가족주의가 국가주의의 메타포로 영화 속에서 각기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본고는 같은 역사적 사건을 다루더라도 영화는 제작국가에 따라 다르게 재현된다는 것을, 그것도 전쟁 양상 재현마저 다르다는 것을, 이를 위해 가족주의마저 서로 다르게 개입한다는 사실을 분석하려 한다.

2. 전쟁 양상 재현

텍스트로 삼은 영화의 전쟁 양상 재현을 분석하는 작업은 세 나라의 입장에서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령 북한 입장에서 인천상륙작전은 지울 수 없는 패배의 기록인데, 그 패배를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무엇보다 김일성 우상화가 강한 북한에서 한국전쟁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순간, 그것도 전쟁의 책임자였던 김일성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패전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는지 살펴보는 것은 분명 흥미롭다. 반대로 미군이 중심이 되어 작전을 펼친 인천상륙작전에서 남한 영화는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이 작전을 수행했고 남한군은 큰 역할을 하지 않았기에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흥미롭다는 것이다. 결국 이 장에서는 텍스트가 되는 영화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쟁을 재현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각 나라의 이데올로기적 상황까지 파악하려고 한다.

1) 전쟁의 한 축인 남한

기이하게도 남한영화계에서 인천상륙작전은 쉽게 영화화되지 않았다. 대규모의 작전을 영화화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산업적인

www.dbpia.co.kr

문제를 고민할 수도 있지만, 실제 이유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인천상륙작전을 재현한 영화는, 제목에서 이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1965년 작 <인천상륙작전>이다. 이 영화에는 당대의 명배우들이 총출동했다고 할 정도로 출연진이 화려하다. 신영균, 김혜정, 윤일봉, 장동휘, 박암, 허장강, 황해, 이대엽, 김석훈, 이수련, 방수일, 송해, 이해룡, 최성 등이 한 영화에 모두 출연한 것이다. 출연진뿐 아니라 상상하기 힘든 규모 때문에 당시 언론에서도 자주 이 영화를 소개했다. 다음을 보자.

> 구정 흥행가는 『인천상륙작전』이 휩쓸고 있는 인상이다. 제작자 유성엽 씨가 원작을 썼고 편거영이 각색한 이 영화는 유엔군사(軍司)와 국방부,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스펙터클한 군사영화이다. 유엔군 장병 70여명이 특별출연한 것도 이색.[5]

남한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고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당시로서는 매우 특이하게 유엔군 장병이 70여명이나 출연한 영화는, 액션 스펙터클이 아니라 첩보 영화 성격의 멜로드라마였다. 맥아더가 지휘하는 상륙작전의 기밀을 빼내기 위해 아군부대에 잠입한 북한 여간첩(김혜정)이 정보장교인 신대위(신영균)와 접촉하다가 그를 사랑하게 되어 북한군에게 역정보를 제공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만든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영화의 주 배경은 인천이 아니라 부산이나 대구처럼 보이는 곳이고, 막바지에서야 맥아더로 추정되는 인물이 살짝 등장할 뿐이다.

이 영화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하다. 한국전쟁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인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만든 수훈자는 유엔군이나 미군이 아니라 남한군이라는 사실이다. 남한군의 치열한 첩보전이 없었다면 인천상륙작전은 성공할 수 없었다는 인식이 영화에는 강하게 전제되어 있

주
5) ≪경향신문≫ 1965.2.1.

www.dbpia.co.kr

다. 이런 인식은 한국전쟁은 남한군과 북한군이 대결을 벌인 전쟁이라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런 인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유엔군 장병이 70여명이나 출연했음에도 영화에서 미국인을 보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경향은 <결사대작전>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영화가 개봉된 1969년은 이미 많은 한국전쟁 소재의 영화가 만들어질 때였다. 당시 남한의 영화계에는 스릴러 액션 영화를 비롯해 여러 장르가 융성하고 있었고, 스릴러 액션 영화의 하위 장르로 전쟁 소재의 액션 영화가 많이 등장하기도 했다. 영화사가 이영일에 의하면, 전쟁 소재의 영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전쟁 스펙터클의 오락영화였고 또 하나는 전쟁 속에 던져진 인간을 그린다는 테마였다."[6] <결사대작전>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자 경향의 영화이다.

영화는 인천상륙작전 전체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인 팔미도 등대 작전을 재현한다.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한 연합군은 팔미도 등대에 불을 밝히는 임무를 남한에 맡기는데, 남한군은 각자 사연이 있는 병사들로 특공대를 조직해 맹훈련을 한다. 결국 그들이 팔미도 등대에 불을 밝힘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영화의 주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실제 팔미도 등대에 불을 밝힌 임무는 남한군만으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261척의 함정과 대규모 선단이 인천 앞바다에 집결하여 월미도에 상륙하고 돌격을 감행할 때 팔미도 등대의 안내로 무사히 인천항에 갈 수 있었는데, 미리 팔미도에 상륙하여 등대를 점화하는 작전 임무는 유진 클라크(Eugene F. Clarke) 해군 대위, F. 클라크혼(F. Clarkhone) 육군 소령, 존 포스터(John Foster) 육군 중위, 계인주 육군 대령, 연정 해군 소령, 그리고 K.L.O.(Korea Liaison Office : 주한 첩보연락처, 일명 켈로 부대) 부대원 최규봉, 이렇게 6명이 맡았다. 9월 15일 감행될 상륙작전을 위해 소규모 부대가 목숨을 걸고 14일 적진에 미리 침투하여 고장 난 등대를 고치고 점화하여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견인한 것이다.[7]

주

6) 이영일, 『한국영화전사』, 도서출판 소도, 2004, 368쪽.

www.dbpia.co.kr

이처럼 미군 3명과 남한군 3명이 수행한 팔미도 등대 점화 임무를 <결사대작전>에서는 순전히 남한군이 했다고 자랑한다. 물론 이렇게 재현한 것이 미국 배우를 섭외하기 어려운 당시의 열악한 영화계 사정 때문인지, 소재 해석에 대한 감독이나 제작자의 의도 때문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 시점에서 영화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이들이 영화를 보면, 한국 전쟁은 남한과 북한의 대결로 치러진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인 인천상륙작전을 가능하게 한 임무는 오로지 남한군이 수행했다는 자부심이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결사대작전> 역시 한국전쟁을 남한군과 북한군의 대결로 그리고, 전쟁의 주체는 남한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작전을 수행한 이들은 성공 후 장렬히 전사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강하게 했다.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양동작전을 펼쳤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인천이 서울과 매우 가까워 상륙작전을 펼치기에 최적의 장소이지만,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수로도 좁아 대군단이 상륙하기에는 위험한 곳이었다. 그래서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사건 자체가 매우 극적 성격을 지니는데, 그런 극적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양동작전으로 적을 교란시켰다는 점이다. 임권택 감독의 1982년 작 <아벤고 공수군단>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이 영화는 조긍하 감독의 <인천상륙작전>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디에서 상륙작전을 펼칠지를 두고 치열하게 첩보전이 전개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는 말이다. 두 영화의 결말이 인천상륙작전이 펼쳐지는 스펙터클로 배치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8]

임권택에 의하면, <아벤고 공수군단>은 "광주 5·18 사건을 치르고

주

7) 이하나, 「북한 전쟁영화의 기억법과 소구법: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남한 전쟁영화와의 비교를 통해 본 북한 전쟁영화」, 『통일연구』 19호, 2015, 81쪽.

8) 이렇게 보면 <장사리>는 양동작전을 다룬 다른 영화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동작전 중 죽은 이들의 희생으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는 엔딩이 아니라 영화 초반에 이미 인천상륙작전은 성공했지만, 학도병들은 여전히 장사리에서 싸우고 있다. 그들이 북한군과 전투를 벌이는 것이 주 내용이라서 차라리 <포화 속으로>(이재한, 2010)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학도병을 추모하는 영화인 것이다.

www.dbpia.co.kr

공수부대 이미지가 굉장히 나빴을 때"[9] 그것을 좋게 만들려고 촬영한 영화였다. 당연히 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던, 매우 적극적인 반공영화이다. 영화는 액자 구성 형식을 취한다. 1980년대의 현재 시점에서 일본에 있던 아들(이영하)이 어머니(정윤희)의 죽음 직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신일룡)를 찾아 성장군(이대근)을 찾아온다. 플래시백으로 돌아간 과거에서 맥아더 사령부에 소속된 특수부대 아벤고 공수부대를 소개한다. 이들은 원산으로 투입되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지만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양동작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을 원산으로 보낸 고중령(남궁원)도 스스로 작전에 뛰어들어 죽고 마는데, 이들의 희생 위에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한다는 이야기다.

영화는 작전 이후 다시 현재의 서울로 돌아온다. 그리고 서울과 남한의 발전이 전사들의 희생 위에 건립되었음을 역설하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주장한다. 무엇보다 그런 일을 군이 했다고 증명한다. 이렇게 보면 <아벤고 공수군단>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만든 유엔군이나 맥아더를 칭송한 것이 아니라 남한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은 남한군의 양동작전이 성공했기에 가능했다. 좀 매정하게 말하자면, (작전상 그렇게 했겠지만) 속여서 남한군을 사지로 보낸 미군이나 맥아더를 비판하면서까지 남한군을 칭송한다. <아벤고 공수군단>이 <인천상륙작전>이나 <결사대작전>보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영화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2016년에 개봉한 <인천상륙작전>은 할리우드의 대표 배우 가운데 한 사람인 리암 니슨(Liam Neeson)을 맥아더 역으로 캐스팅해 촬영 전부터 화제가 되었다. 이 말은 이제 한국에서도 인천상륙작전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자본과 기술력이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앞에서 인천상륙작전을 재현한 영화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2016년의 영화는 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천상륙작전>은 인천상륙작전의

주
9) 정성일, 『임권택이 임권택을 말하다1』, 현실문화연구, 2003, 473쪽.

www.dbpia.co.kr

여러 특징을 온전히 그릴 수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인천에 안전하게 상륙하기 위해 기뢰 설치를 비롯한 여러 정보를 빼내는 첩보전 이야기, 상대를 교란시키기 위해 역정보를 흘리는 이야기, 작전 성공에 필수적인 팔미도의 등대를 밝히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성공한 후 인천에 상륙하는 대대적인 공격 등이 모두 펼쳐진다.

기본적으로 영화는 첩보전의 성격을 띤다. 맥아더의 지시로 구성된 대북 첩보작전 'X-RAY'의 이야기가 주축을 이루는데, 대원들이 인천으로 가서 작전 성공을 위한 정보를 캐내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원이 발각돼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결국 팔미도의 등대가 켜지고 기뢰 문제도 해결되면서 상륙작전은 성공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인천상륙작전> 역시 앞의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인천상륙작전이 미군이 중심이 된 유엔군의 일방적인 작전이 아니라 남한군이 한 축을 형성한 작전, 아니 남한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작전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들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영화는 평론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1960년대식 반공영화라는 이유가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애국주의'라는 사상적인 측면보다 상투적인 장면 짜깁기와 유기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스토리 라인, 그리고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캐릭터 구성과 같은 영화의 기본적인 자질"[10]을 비판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 즉 작품성과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인천상륙작전을 다룬 남한 영화를 전쟁의 양상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은 맥아더 장군이 중심이 된 일방적인 유엔군의 작전이 아니라 남한군의 소중한 희생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작전이었다. 심지어 조긍하 감독의 <인천상륙작전>과 <결사대작전>에서는 미군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 <아벤고 공수군단>에서 미군은 필요에 따라 남한군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들이었다. 이재한 감독의 <인천상륙작전>에서 맥아더 장군은 작전의 중심이지

주

10) 김지미, 「[영화] 파탄난 서사와 좀비가 된 권력」, 『황해문화』 2016년 가을호, 420쪽.

www.dbpia.co.kr

만, 남한군의 임무 수행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들 영화를 시간순으로 보면, 초기에는 남한군이 중요한 역할을 한 전쟁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다가 스펙터클이 커지면서 미군과 함께 했지만 한 축을 맡았다는 방식으로 재현되었다. 결국 남한 영화에 재현한 인천상륙작전은 남한군이 중요한 역할을 한 작전이고 남한군은 북한군과 싸우는 군인들이었다. 네 영화에서 모두 악랄한 북한군이 등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북한군은 악마와 같은 존재, 살인마와 같은 존재일 뿐이며, 왜 전쟁이 발발했고 전쟁이 어떤 상처를 불러왔는지 근본적으로 묻는 영화는 등장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 북한과 미제의 전쟁

1982년에 제작된 <월미도>는 1952년에 발간된 황건의 소설 『불타는 섬』을 영화화했지만, 등장인물의 설정이나 관계, 주제 등에서 많이 각색했다. 그래서 "개인들의 전쟁경험으로 서사화된 소설 <불타는 섬>은 '수령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군대의 영웅적 투쟁기'인 <월미도>로 재구성된다"[11]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렇다면 영화는 어떻게 개인의 전쟁경험을 수령에 대한 충성으로 바꾸어 놓았을까?

<월미도>가 재현하고 있는 것은 단 네 문의 대포로 3일 동안이나 맥아더의 5만 대군과 맞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북한군의 이야기다. 목숨을 바치면서 장렬하게 싸운 덕으로 조선인민군 지휘부가 무사하게 후퇴할 수 있었다고 영화는 말한다. 그들의 죽음이 있었기에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면서, 그들이 김일성을 위해 죽는 모습을 재현한다. 영화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주체의 인생관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인 일반화와 혁명적 낭만성의 결합, 극적인 인간관계에 기초한 치밀한 구성조직, 주인공들의 성격의 개성화와 대중적 영웅주의의

주

11) 이선미, 「북한소설 <불타는 섬>과 영화 <월미도> 비교 연구 : 서사와 장르인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1호, 2004, 293쪽.

www.dbpia.co.kr

유기적인 통일 등으로 하여 높은 사상예술성을 구현하였다"[12]라고 평가받았다. 무엇보다 영화가 혁명적 비극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는데, 영화가 어떻게 혁명적 비극을 담고 있는지는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다.

> 북한은 이 영화가 '혁명적 비극의 본질'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호평하고 있다. 혁명적 낭만주의가 혁명적 비극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대원들이 죽음 앞에서 한 다음과 같은 대사로 짐작이 가능하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전 한이 없습니다. 혹시 전할 길이 있으면 해군중사 최석준이가 장군님의 안녕을 축원하면서 나갔다는 것을 전해주십시오." 혁명적 비극이란 이렇게 죽음이 있고 파국이 있되 그것을 결코 혁명의 파국이나 패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육체적 생명의 죽음을 정치적 생명의 죽음과 동일시하지 않는 북한에서 육체적 생명의 비극이라 해도 정치적 낙관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혁명적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13]

이들의 죽음이 단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김일성을 위한 희생적 죽음이기 때문에 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북한영화 <월미도>는 1982년에 제작되었다. 1982년이라면 이미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세습이 확고해졌고, 김정일에 의해 주체사상이 완성된 시기였다. 이런 시기에 미제와의 전쟁을 스펙터클한 액션과 동지애로 그려 내부적 결속을 다지려 했으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무엇보다 영화는 김일성은 곧 조국이라는 등식을 끊임없이 주입시킨다. 일제의 그 모진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뒤 김일성이 찾아준 조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북한 인민들의 가장 큰 낙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영화는 계속 주장한다.[14]

그래서인지 "영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국전쟁의 기본 구도를 북한 인민과 미국 간의 전쟁으로 보는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것이

주

12) 백지한, 『북한영화의 이해』, 친구, 1989, 34쪽.
13) 이명자, 『북한영화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153쪽.
14) 강성률, 『은막에 새겨진 삶, 영화』, 한겨레출판사, 2014, 129쪽.

www.dbpia.co.kr

다."[15] 놀랍게도 영화에서 남한군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북한이 보기에 한국전쟁은 북한과 미제와의 전쟁이었다. 아주 직접적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포로로 잡혔던 미 해병이 조선인민군의 목숨을 건 전투를 보면서 "나는 이들처럼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진실한 인간들을 본 일이 없네. 그 누구도 이런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을 걸세. 미국은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어도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는 없네."라고 말하는 대목이다. 더불어 영화를 만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1983년에 제작된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는 "이 영화를 1950년 9월 인천해상에서 전사한 결사대 비행사들에게 드린다."라는 자막으로 시작한다. 장소는 인천에서 가까운 비행장인 김포이다. 전투기 부대의 대대장 영식(박용건), 문화부대대장 동수(정의겸), 책임비행사 윤철(전재연) 등이 주인공이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이기보다는 오로지 당과 조국의 전쟁 승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동수는 비행 도중 총격을 당했음에도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켜 보존한 후 죽음을 맞고, 영식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인민군이 후퇴할 때 홀로 전투기를 몰고 가서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며 장렬하게 전사한다.

<월미도>와 마찬가지로 혁명적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는 노골적으로 병사들의 죽음을 미화한다. 대대장 영식이 마지막 출격을 나가 죽는 모습은 일제강점기의 많은 영화에 나타나는 가미가제 특공대의 죽음과 정확하게 겹친다. 전투기를 몰고 가서 미국의 항공모함에 타격을 주면서 자신도 결국 죽는 이야기는 이미 일제강점기의 숱한 영화에 그려진 이야기의 반복에 불과하다. 다만 아군이 일본군에서 북한군으로 바뀌었을 뿐 내용 전개나 적군 상황은 같다. 이렇게 보면 천황의 병사가 천황을 위해 죽듯이(천황 폐하 만세를 부르며 죽어가듯이) 인민군은 김일성 장군을 위해서 죽어간다(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며 죽어간다).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에서도 남한군은 등장하지 않는다. 미군도 직

주
15) 이하나, 앞의 글, 90쪽.

www.dbpia.co.kr

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북한군의 대화를 통해 오로지 한국전쟁은 북한과 미국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인천상륙작전 때문에 후퇴하게 된 이들이 후퇴의 안전을 확보하고 미군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자살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보면, 한국전쟁은 북한과 미국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을 다룬 북한 영화를 전쟁 양상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북한에게 인천상륙작전은 패배의 전쟁이 아니라 지도부가 후퇴할 수 있도록 극히 적은 부대원이 영웅적으로 싸운 용감한 전투였다는 것을.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싸운 전투였다는 것을. 이들에게 적은 남한군이 아니라 오로지 미군이었고, 미군에 맞서 김일성 장군을 위해 싸웠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곧 김일성 장군'이라는 북한만의 등식이 영화 속에서 성립하게 된다. 결국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김일성을 위해 영웅적으로 죽어간 비극성을 강조하면서 김일성 우상화를 하고 있다.

3) 기독교 사상 안의 반공

미국과 남한이 합작한,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의 제목은 <인천>이다. 감독은 <007> 시리즈로 유명한 테렌스 영이 맡았고, 맥아더 역의 올리비에(Laurence Olivier)를 비롯해, 비셋(Jacqueline Bisset), 가자라(Ben Gazzara), 미후네(Toshirô Mifune), 라운드트리(Richard Roundtree), 남궁원, 이낙훈 등이 출연했으며, 영화의 제작 국가는 한국과 미국으로 되어 있다. 전체 제작기간은 1979년 4월부터 10월, 촬영기간은 1979년 5월 21일에서 8월까지로 알려져 있다. 인천, 서울역 등에서 촬영될 당시의 국내 기사에는 영화 제목을 <인천!>, <오, 인천!> 등으로 소개했는데, 총 제작비는 4천6백만 달러로 촬영 시에 많은 미군이 보조출연자로 참여했고, 최종으로 완성된 영화는 워싱턴 D.C.에서 1981년 5월 4일 프리미어 상영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16]

www.dbpia.co.kr

흥미롭게도 영화의 제작비는 통일교 총재인 문선명이 투자했다. 문선명이 스스로 말하기를, <인천>을 만든 이유는 첫째, 한국전쟁에 침략자가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 둘째, 맥아더 원수의 공적에 대하여 존경과 찬사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했다. 또한 문선명은 맥아더가 공산 침략을 막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그는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실천하였다고 말했다. 영화에서 맥아더가 위대한 장군으로만 그려지지 않고 기도하는 인간으로 그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17]

등장하는 인물이 많고 상황도 복잡해 스토리가 다소 산만하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화가 시작되면 평화로운 마을에 갑자기 전쟁 발발을 알리는 라디오 소리가 들리면서 급박한 상황이 전개된다. 전방에 있던 바바라 홀스워스(비셋)는 서울로 가던 중 고아들을 태워 부산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남편인 미군장교 프랭크 홀스워스(가자라)를 만난다. 그런데 맥아더는 홀스워스에게 팔미도로 가서 등대를 밝히는 임무를 맡기고, 마침내 등대의 불이 밝혀지면서 작전이 수행되고, 마지막에는 중앙청에서 맥아더와 이승만이 조우한다.

<인천>은 전형적인 반공영화이다. "영화 시작부터 북쪽 군대가 민간인들을 마구 학살하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북쪽 탱크가 평화로운 마을로 진격해 초가지붕 아래 민간인 부부를 깔아 죽이는가 하면 곳곳에서 민간인들을 보기만 하면 학살하는 장면"[18]이 연속으로 이어진다. 선과 악이 이토록 분명한 영화에 대한 미국의 평은 좋지 않았다. "군사 스펙터클 장르로서 <인천>은 영화역사상 가장 유감스러운 영화 가운데 하나"[19]라는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 북한 당국이 영화가 인천상륙작전을 왜곡했다고

주

16) 김종국, 「영화 <인천>(1981)에 관한 평가와 관객의 인식 양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호, 2017, 752쪽.

17) 문선명, 「문선명 목사 개회 연설문 전문:언론이 갖는 선하고 무한한 가능성 믿어」, ≪동아일보≫, 1982.10.9.

18) 손석춘, 「인천상륙작전의 소통과 치유 - 영화 <인천상륙작전>과 <월미도>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70집, 2017, 209쪽.

19) Richard Schickel, *Inchon*, TIME Magazine, 1982.10.4., 김종국, 앞의 논문, 753쪽에서 재인용.

www.dbpia.co.kr

비판하기도 했다.[20] 미국에서는 흥행에 참패하고 한국에서는 개봉도 하지 못한 영화는 역대 최악의 작품으로 평가 받기도 했다.

영화는 맥아더를 기독교적 시각에서 조망한다. 그는 강력한 능력을 소유한 군인이 아니라 신에게 의지하는 인간적인 군인이다. 민간인을 무조건적이고 잔혹하게 학살하는 공산군을 무찌르기 위해 그는 고민하고 기도한다. 이재한의 <인천상륙작전>에서 맥아더가 거의 신적 경지의 신비함을 지닌, 강력한 군인이었다면, <인천>에서는 그렇지 않다. 심지어 서울을 수복한 후 중앙청에서 기자들에게 연설할 때 그는 주기도문으로 설교를 대신한다. 이어서 뉴스릴로 "노병은 죽지 않는다"라는 그 유명한 연설 장면으로 편집된다.

인천상륙작전을 다룬 한미 합작영화를 전쟁 양상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인천>은 기독교 사상에 바탕을 둔, 선과 악이 분명한 반공영화이고, 그것을 전쟁의 스펙터클을 통해 재현하고 있다고.

3. 영화 속의 가족주의

전쟁을 소재로 한 많은 영화는 가족주의를 담는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재난 상황에서 가장 친밀한 단위인 가족의 이별이나 죽음을 통해 애절함을 표현하거나, 거꾸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참전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참전해야 하니 당위성과 명분이 발생하고, 가족과 떨어져서 사지로 가야 하니 애절함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쟁 영화는 액션이나 스펙터클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애나 연인간의 사랑에 바탕을 둔 멜로드라마적 코드를 갖는 경우가 많다. 이 장에서 가족애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족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가족주의가 가족 구성원보다 가족 전체의 가치를 중시여기는 것으

주

20) 노재승 편, 『북한영화계 1977 – 1988』, 영화진흥공사 격월간 <영화> 125호 별책부록, 1989, 87쪽.

www.dbpia.co.kr

로, "가족주의는 국가주의의 또 다른 얼굴"[21]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국가주의와 필연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가족주의를 통해 인천상륙작전을 그린 영화를 분석하려 한다.

1) 조국이라는 메타포

인천상륙작전을 다룬 남한 영화는 대부분 참전의 당위성을 알리고 북한의 잔혹성을 고발하기 위해, 또는 멜로적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극중 가족 관계를 중시 여긴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순간, 육체적 어머니나 아버지가 조국의 비유로 사용되면서 참전의 절대적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결사대작전>에서는 특공대 자체가 하나의 의사(pseudo) 가족이다. 그들을 가르치는 박대위(박노식)는 아버지고, 특공대원들은 나이순으로 유사 형제가 된다. 훈련을 마치고 출전하기 직전 파티를 벌일 때 그들은 부대 근처에서 떡을 팔고 있는 노모(정애란)를 초청해 어머니라고 칭한다. 노모의 아들이 전쟁에 나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사 아들이 되어 어머니를 만난 것이다. 이때 특공대원들은 노모에게 나이순으로 자신들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식으로 소개한다. 어머니가 된 노모는 반말을 하면서 아들들을 맞이한 후 전장으로 보낸다. 이 장면을 통해 특공대원들은 정말 형제가 되었고, 전사한 아들을 두었던 어머니는 이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전사한 아들을 대신해 아들이 된 이들이 다시 그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출전하게 되고 결국 죽게 됨으로써 이들은 마침내 조국이라는 어머니를 지킨 것으로 승화된다. 결국 <결사대작전>은 남성들만의 거친 액션을 위주로 삼은 영화지만,[22] 그들이 거친 남성이 되어 갈수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사무쳐 가고, 그것을 극적 장치로 해소한다. 흥미로

주

21) 이득재, 『가족주의는 야만이다』, 소나무, 2001, 110쪽.

22) 영화는 <팔도 사나이>(김효천, 1969)의 분위기를 강하게 풍긴다. 거친 삶을 살아온 남성들의 이야기라는 점, 그들이 여러 지방 출신이라는 점, 결국 그들이 개과천선해서 공적 성과를 이룬다는 점, 무엇보다 출연진이 많이 겹친다는 점에서 그렇다.

www.dbpia.co.kr

운 것은 팔미도의 등대를 지키다가 아내가 공산군에게 잔인하게 학살당한, 팔미도 등대지기 출신 강동철(허장강)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바로 아내의 복수이고, 그 복수를 통해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한다는 설정이다. 가족애는 이렇게도 활용된다.

<아벤고 공수군단>은 처음부터 가족 이야기를 한다. 일본에서 온 오승지는 성장군에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묻는다. 아버지는 특수부대원이었고 출전 전날 만난 수나와 즉흥적으로 결혼했지만, 아버지는 전사하고 어머니가 유복자를 낳았던 것이다. 어머니가 죽은 후 일본에서 유해를 모시고 온 승지에게 아버지는 바로 조국이 된다. 어머니의 유해를 어디에 묻어야 하는지 묻는 승지에게 성장군은 너의 가슴에 묻으라고 한다. 결국 아버지가 피땀 흘려 지킨 나라가 조국이 되는 메타포가 성립된 것이다. 아버지가 조국으로 비유되는 것 외에도 영화에서는 가족애를 수시로 보여준다. 고중령(남궁원)이 부인의 애청곡을 자주 듣는 이유도 공산치하에 부인이 있기 때문이다. 부인이 사선을 넘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는 북한 정보국에 원산상륙작전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참전해 전사한다. 장필규(김희라) 역시 적진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의사인 부인에게 도움을 받아 탈출을 시도하다가 죽는다. 이렇게 영화 속에는 가족을 통해 멜로적 정서를 자극하는 인간관계가 있고, 이를 넘어 아버지를 조국에 비유하는 메타포가 등장한다.

이재한 감독의 <인천상륙작전>은 요원들의 가족 관계를 활용해 멜로적 정서를 극대화한다. 소련 유학파 장학수(이정재)는 아버지마저 학살하는 공산당의 잔혹함에 환멸을 느껴 그들과 맞서 싸우는 첩보원이 되었다. 아버지가 죽은 뒤 학수는 죄책감을 지니고 있고, 어머니(김영애)는 집안이 망해 인천에서 국수를 팔고 있다. 팔미도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에 그는 시장에 가서 먼 발취에서 어머니를 본다. 맥아더가 왜 작전에 자원했냐고 물을 때 그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답한다. 그리고 작전 완수 후 죽어가면서 내레이션으로 어머니 대신 조국을 택했다고, 하늘에서 지켜드리겠다고 말한다. 그에게 어머니는 지켜야 할 대상인데, 이는 바로 조국으로 승화된다. 재미있는 것은 그의 의사(pseudo) 아버지로 맥아더가

www.dbpia.co.kr

설정된다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 가장 힘이 있는, 거의 신적 존재에 가까운 맥아더가 의사 아버지가 됨으로써 그는 실제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고 어머니의 안위도 걱정하지 않으면서 죽을 수 있었다. 남기성(박철민) 역시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 시장의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아내와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다. 트럭에 숨어 몰래 만나면서 자신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해 비극적 정서를 더욱 강화한다. 결국 그는 죽어 돌아오지 못하는데, 장학수의 어머니와 남기성의 부인이 진군하는 유엔군과 국군 사이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애절한 장면이 등장한다. 아버지를 죽이는 공산주의자들의 무자비함을 고발하는 비슷한 설정이 하나 더 있다. 첩보요원 한채선의 삼촌이 발각되어 총살당하자 공산주의자였던 한채선(진세연)은 국군 편으로 돌아선다. 잔혹한 공산주의자들에게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다.

남한 영화에서 가족주의는 가족애에서 출발한다. 아내나 아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참전하거나 작전에 참가하게 된다. 아니면 작전을 완수하고 죽은 아버지의 행적을 찾아 왔다가 그를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설정이 어느 순간, 아버지로 표상되는 조국이나 어머니로 표상되는 조국으로 승화하면서 반공영화가 된다. 잔혹한 공산군의 학살에 맞서 '아버지 조국'과 '어머니 조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해 장렬하게 전사하고 만다. 결국 반공영화인 세 편이 목적하는 것은 조국을 위해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고, 이것을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표상을 통해 스토리화 하고 있다.

2) 김일성 중심의 가족주의 국가관

남한 영화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메타포화 해 조국으로 승화한다면, 북한 영화에서는 김일성이라는 존재가 조국이 된다. 그러나 이런 설정으로 바로 나가지 않고 가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먼저 보여준다. 가령 <월미도>에서 전투를 준비하는 이들은 의사 가족을 구성한다. 아버지인 대

www.dbpia.co.kr

대장, 어머니 같은 취사병 아바이, 어린 누이 같은 통신수 등의 설정이 그렇다. 그래서 이들의 "죽음을 통해 전투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을 구하고 가족이나 다름없는 국가를 구한다는 명분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도록 유도한다. 감정과잉으로 '하나된 마음'은 가부장적 공동체와 가부장을 향한 충성심으로 역할한다."[23] 그래서 이 영화가 가부장 중심의 영화라고 할 수 있지만, 영화의 목적이 결국 김일성 수령이라는 단 한 명의 가부장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큰 가족주의, 즉 국가 가족주의로 확대된다.

영화에서 김일성은 말 그대로 민족의 아버지로 표상되었다. 가장은 수령이며, 국가는 혁명의 대가정이고, 사회는 사회정치적인 생명체로 설명된다. 가족구성원인 인민은 수령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사실상 동일한 개념인 충성과 효도가 북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다.[24] 그래서 "장군님을 방위하는 심정으로 이 섬을 사수하겠다"라는 대사는 바로 '장군님=조국=민족=가족=고향'의 의미 연쇄를 이룬다."[25]

이런 설정은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 영화에서는 아버지 조국이 아니라 어머니 조국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대대장 영식은 "나를 공부시켜 주고 먹여주고 입혀준 건 나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조국의 품"이라고 한다. 심지어 가미가제로 죽어가면서도 그는 "조국이여, 어머니 조국이여,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이라고 외치는데, 이 대사가 곧바로 엔딩이 되어 버린다. 이렇게 영화 속 조국은 어머니로 표상된다.

영화에서는 조국을 나무로 비유하기도 한다. 동수가 짓다만 시 구절인 "그대가 한 그루 나무라면 이 몸은 가지에 피는 잎사귀"에 이어 영식은 "찬바람 불어와 떨어진데도 흙이 되어 뿌리를 덮어주리라"라고 완성한다. 이것을 해석하면 조국이라는 나무에 잎사귀로 피어나는 인민들, 인민

주

23) 이선미, 앞의 글, 289쪽.

24) 정영권, 「남북한 전쟁영화의 민족 재현 비교 연구 : <돌아오지 않는 해병>(1963)과 <월미도>(1982)를 중심으로」, 『씨네포럼』 11호, 2010, 198-199쪽.

25) 이하나, 앞의 글, 91쪽.

www.dbpia.co.kr

들이 고난으로 죽더라도 조국을 위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이라는 나라가 나무이고 인민은 잎에 비유되면서 북한 체제가 거대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거대한 가족 공동체를 위해 인민들은 복무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이때 나무는 북한이 되기도 하지만, 김일성이 되기도 한다.

두 영화에 드러난 이러한 가족주의는 일본 제국주의의 가족 국가관과 무척이나 유사하다.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한 일본의 핵심정치 체제는 '천황제 가족주의'였다. 그것은 서방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가족적 전체주의'이다. 즉 "일본국민의 '신민'화는 천황을 가장(家長)으로 하고, 신민을 적자(赤子)로 하는 가부장적(家父長的) 사회구조를 창출함으로써 국가를 끊임없이 '가족'의 연장으로 이해시킴과 동시에 민심을 오로지 천황에 수렴해가는, 소위 '가족국가관'을 확립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26] 이런 구조에서 천황의 자리에 김일성 수령을 넣으면 똑같은 가족주의 국가관이 성립된다. 북한은 일제의 천황 시스템을 그대로 복원하고 있는 국가다. 두 영화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국가와 수령을 통해 그들이 그토록 선전했던 '어버이 수령'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3) 한미일의 유사 가족 형성

<인천>은 기본적으로 재난영화의 틀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미국 현지에서는 "엉성한 이야기"[27]라고 평가 받은 부분인 바바라와 홀스워스 소령 사이의 멜로드라마적 스토리는 재난 영화의 컨벤션 안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통상 재난 영화에서 주인공은 아내나 남편과 별거 중이거나 이혼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가족이 함께 그것을 극복하고 가

주
26) 김필동, 『일본의 정체성』, 살림, 2005, 49쪽.
27) Gary Arnold, *''Inchon': An Epic Bungle*, Washington Post, 1982.9.17.

www.dbpia.co.kr

족 간의 관계도 복원되는 것이 통상적인 할리우드 재난 영화의 스토리인데, 이런 시각에서 보면 바바라와 홀스워스 소령 사이의 데면데면했던 관계가 전쟁을 통해 다시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 서사이다. <인천>에는 두 사람의 멜로드라마적 가족애뿐 아니라 맥아더 부부의 사랑도 깊게 나오고, 한국인인 박과 그의 부인의 가족애도 등장한다.

그런데 <인천>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가족주의는 한국과 미국, 일본을 유사 가족으로 그리고 있는 설정이다. 영화에서 림은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고, 그녀의 아버지 사이토산과 어머니는 프랭크 소령을 극진히 환대한다. 림의 방이 전통 한옥 구조에 침대와 같은 서양 가구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림과 프랭크가 실내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 서양식으로 생활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통해, '일본인-한국인-미국인'으로 구성된 이 유사 가족의 모습은 인종과 국경을 넘어 혼종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28] 팔미도 작전에서도 한국인과 미국인, 일본인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결국 성공하는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남한과 미국과 일본이 함께 해서 성공한 작전인 것.

이런 유사 가족의 재현은 영화를 제작한 문선명의 종교적 소망이 들어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산주의라는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 남한과 일본, 미국이 유사 가족이 되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기 때문이다. 문선명이 "인류는 인종・국경・계급 등 일체의 차별과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 단일 문화에 의한 통일세계"[29]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팔미도 등대 작전에서 백인 주도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 국적의 요원들이 함께 능동적으로 수행한다.

주

28) 김남혁, 「맥아더 장군과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삼은 1970-80년대 남한, 북한, 미국 영화의 재현 양상 연구」, 한국연구재단 연구성과물, 2018, 12-13쪽.

29) 신도성, 「문선명, 그의 경륜과 리더쉽」, 백철 외, 『문선명 그 인간과 이상』, 성화사, 1985, 139쪽. 김남혁, 앞의 글, 7쪽에서 재인용.

www.dbpia.co.kr

4. 나오며

인천상륙작전을 다룬 남한 영화는 전쟁 주체가 남한군이고 미국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고 재현한다. 그래서 소재를 선택할 때에도 첩보전이나 팔미도 등대 작전, 양동작전 등을 주로 그린다. 이재한 감독의 <인천상륙작전>에 와서야 온전히 인천상륙작전을 그리지만 이 역시 남한군의 첩보활동으로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는 스토리가 중심이다. 이에 비해 북한 영화에 재현된 인천상륙작전은 지휘부의 수월한 후퇴를 위해 3일이나 버틴 영웅적 전투를 재현한다. 북한 영화는 한국전쟁을 북한과 미국의 전쟁으로 그리고, 남한군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다. 한미 합작영화인 <인천>에서는 잔혹한 공산 세력에 맞서 싸우는 미국과 남한, 일본의 요원들이 보이고 기독교적 사상 안에서 전쟁을 그린다. 결국 남한 영화에는 "상륙하는 연합군이 내부자로, 상륙정보를 알아내려는 공산세력이 외부자로 대치된다. 반대로 '월미도'에서는 수호를 위한 북한군이 내부자로, 상륙을 하려는 연합군이 외부자로 대치된다.[30] 결국 각자의 시각에서 전쟁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세 부류의 영화는 가족주의를 통해 전쟁의 아픔과 조국애, 멜로적 정서 등을 표현한다. 인천상륙작전을 그린 남한 영화에서 가족주의는 가족과의 이별의 애절한 멜로적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어머니나 아버지라는 혈육을 위해 자식이 기꺼이 전투에 참가하는 것으로 그려져 아버지나 어머니가 국가로 유비된다. 북한 영화에서는 김일성이라는 지도자가 국가로 바로 치환된다. 그래서 김일성은 수령이면서 부모이고 국가가 되고, 인민은 그의 충실한 자식이 된다. 한미 합작영화 <인천>에서는 재난 영화의 컨벤션으로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남한과 일본과 미국이 유사 가족을 형성해 작전을 수행한다.

이제 남은 문제를 적고 마치려 한다. 본고의 가장 큰 한계는 <인천>이 한미 합작영화의 성격보다는 통일교의 영향이 강한 영화이기 때문에 일

주

30) 장윤정, 「인천상륙작전 영화에 표현된 장소 재현」, 『대한지리학회지』 49호, 2014, 86쪽.

www.dbpia.co.kr

반화하기 어렵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텍스트를 찾았으나 <맥아더> 외에는 거의 없었고, <맥아더>조차 인천상륙작전을 집중적으로 그린 영화가 아니라서 텍스트로 선정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인천>을 빼고 논하기에는 <인천>이 지닌 특성이 명확했다. 영화 속 미국, 일본, 남한의 관계를 잘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텍스트로 선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유 때문에 논문의 한계가 명확해진 것도 사실이다.

인천상륙작전을 그린 각 영화들이 외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손석춘이 이미 지적한 것처럼, "전쟁으로 학살당한 민중에 대한 외면과 맥아더·김일성에 대한 '전쟁 영웅화'가 그것이다."[31] 가령 월미도 원주민들은 폭격이 끝난 "며칠 후 다시 가보니 집과 무덤은 불도우저로 완전히 정리되어 그 흔적을 찾을 길이 없었고, 그 이후로는 미군이 진주하면서 '군 작전상 방해된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야만 했"[32]는데, 그들은 아직도 월미도로 돌아가지 못했다. 영화에는 왜 이런 부분이 등장하는 않는지, 거꾸로 왜 전쟁영웅화만 등장하는지 분석하는 논문도 기회가 되면 쓰고 싶다.

주

31) 손석춘, 앞의 글, 202쪽.

32) 이희환, 『문학으로 인천을 읽다』, 도서출판 작가들, 2010, 264쪽.

www.dbpia.co.kr

참고문헌

영화

<인천상륙작전>(조긍하, 1965)
<결사대작전>(고영남, 1969)
<아벤고 공수군단>(임권택, 1982)
<인천상륙작전>(이재한, 2016)
<인천 Incheon>(테렌스 영(Terence Young), 1982)
<월미도>(조경순, 1982)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김유삼, 1984)

저서

강성률, 『은막에 새겨진 삶, 영화』, 한겨레출판사, 2014.
김필동, 『일본의 정체성』, 살림, 2005.
노재승 편, 『북한영화계 1977 – 1988』, 영화진흥공사 격월간 <영화> 125호 별책 부록, 1989.
백지한, 『북한영화의 이해』, 친구, 1989.
이득재, 『가족주의는 야만이다』, 소나무, 2001.
이명자, 『북한영화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이영일, 『한국영화전사』, 도서출판 소도, 2004.
이희환, 『문학으로 인천을 읽다』, 도서출판 작가들, 2010.
정성일, 『임권택이 임권택을 말하다1』, 서울:현실문화연구, 2003.

논문 및 기사

김지미, 「[영화] 파탄난 서사와 좀비가 된 권력」, 『황해문화』 2016년 가을호.
김남혁, 「맥아더 장군과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삼은 1970-80년대 남한, 북한, 미국 영화의 재현 양상 연구」, 한국연구재단 연구성과물, 2018.
김남혁, 「데탕트 이후 영화의 한국전쟁 재현 양상에 대한 연구 - 더글라스 맥아더 혹은 인천상륙작전 관련 남한, 북한, 미국 영화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74호, 2019.
김종국, 「영화 <인천>(1981)에 관한 평가와 관객의 인식 양상」, 『한국콘텐츠학회

www.dbpia.co.kr

논문지』 제17권 제1호, 2017.
문선명,「문선명 목사 개회 연설문 전문:언론이 갖는 선하고 무한한 가능성 믿어」, ≪동아일보≫, 1982.10.9.
손석춘,「인천상륙작전의 소통과 치유 - 영화 <인천상륙작전>과 <월미도> 비교를 중심으로」,『통일인문학』 제70집, 2017.
이선미,「북한소설 <불타는 섬>과 영화 <월미도> 비교 연구 : 서사와 장르인식의 차이를 중심으로」,『현대소설연구』 21호, 2004.
이하나,「북한 전쟁영화의 기억법과 소구법: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남한 전쟁영화와의 비교를 통해 본 북한 전쟁영화」,『통일연구』 19호, 2015.
장윤정,「인천상륙작전 영화에 표현된 장소 재현」,『대한지리학회지』 49호, 2014.
정영권,「남북한 전쟁영화의 민족 재현 비교 연구 : <돌아오지 않는 해병>(1963)과 <월미도>(1982)를 중심으로」,『씨네포럼』 11호, 2010.
천정환,「'역사전쟁'과 역사영화 전쟁 : 근·현대사 역사영화의 재현 체계와 수용 양상」,『역사비평』 117호, 2016.
Gary Arnold, ''Inchon': An Epic Bungle, Washington Post, 1982.9.17.

www.dbpia.co.kr

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Korean Films, North Korean Films and South Korea-U.S. Collaboration Films on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Focused on the Representation of War and Familism

영화
연구
85

Kang, Seungryul
Professor, Kwangwoon University

This paper purposes to compare and contrast films depicting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which is the most important event in the Korean War. I intend to study how a film reflects the times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with the representaion of the South Korean film, the North Korean film, and the South Korea-the U.S. collaboration film.

The South Korean films represent that the subject of the war is the South Korean military and that it conducts the Operation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Therefore, even when choosing materials, the films usually draw the intelligence war, Palmy-do Lighthouse Operation, and feint operation. In contrast,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in the North Korean film, talks about heroic battles that had lasted three days under the absolute inferiority to make the command's retreat easy. North Korean films portray the Korean War as a war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South Korea-the U.S. collaboration film, *Incheon* shows agents from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Japan who fight against the brutal communist forces, depicting the war in Christian thought.

The three films express the pain of war, the love of the country and melodramatic emotion through familism. In South Korean films, familism reveals the mournful melancholic feelings of separating from the family, but rather, the

www.dbpia.co.kr

children are portrayed as willing to engage in the battle for their mother or father, which she or he eventually is analogous to a nation. In the North Korean film, a leader Kim Il-sung is replaced by a nation, so Kim becomes both a parent and a nation while the people become his faithful children. On the other hand, the South Korea-the U.S. collaboration film, *Incheon* brings back the couple's love with the convention of disaster films. Most of all,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ppear to carry out operations by forming similar families.

Keywords :
Incheon Landing Operation, cinematic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 of war, familism, comparative study

투고일(2020년 08월 05일), 심사일(1차: 2020년 08월 26일, 2차: 09월 06일),
게재확정일(2020년 09월 07일)

www.dbpia.co.kr